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0-직권-00001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 해 자 ○○○○학교 학생 ○○○, □□□, ◇◇◇◇

피 조 사 자 ○○○○학교(前○○○○학교) 교사 ○○○○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는 피해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하여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신분상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나.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위와 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성인지감수성 포함)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교직원에게 적절한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성인지감수성 포함)을 향상시키는 교육, 연수 등을 학생에게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학교장에게

가. 피조사자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이 낮은 것이 그 원인이므로, 소속 교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교육, 연수 등을 포함하는 자체계획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학생인권교육센터 등과 협의)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실시 배경

○ 2020. 2. 3. ○○○○학교 학부모들이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같은 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가정형편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기초조사 결과, 위 주장이 사실로 보이고, 피해학생이 다수이고 피해가 반복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직권조사 개요

가. 피해자: ○○○○학교 ○○○(○-○, 피해학생 1.), □□□(○-○, 피해학생 2.) ◇◇◇(○-○, 피해학생 3.) ※ 2019년

나. 피조사자: ○○○○학교(前○○○○학교) 교사 ○○○○

다. 사건 요지

1) 2018년경 피조사자는 수업중 피해학생 1.의 몸매를 이야기 하였고, 2019년경 수업시간에 피해학생 1.에게 “(고도비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복도 계단에서 피해학생 1.의 배를 손으로 만지며 “별로 안 나왔네”라고 말하였다.

2) 피조사자는 2019년 1학기 여름경에 복도에서 피해학생 2.가 살을 많이 뺐다며 피해학생 2. 뒤에서 엉덩이를 치고 허리 부위를 만졌다.

3) 2018.경 피조사자는 수업시간에 피해학생 3.에게 ‘가정교육을 못받았다’라고 하였다.

3. 직권 조사 방법

가. 조사방법 : 관련자 면담조사, 학생 설문, 면담조사 등

나. 조사 경과

- 2020. 2. 3.(월) 대면 상담
- 2020. 2. 5.(수) ○○○○학교 방문조사(설문조사)
- 2020. 2. 6.(목) ○, ○학년 남녀 학생별 집단 면담 조사
- 2020. 2. 27.(목) 직권조사 결정
- 2020. 3. 7.(금) 피조사자 면담(문답)조사

II.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붙임 1]과 같음

2. 당사자와 참고인들의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학생 1.

사건요지 1)항과 같음

2) 피해학생 2.

사건요지 2)항과 같음

3) 피해학생 3.

사건요지 3)항과 같음

나. 피조사자의 주장

1) 사건요지 1)항 관련

2018년경 제가 비만 얘기를 하다가 피해학생 1.이 방학 동안에 몸이 불은 거 같아 비만의 심각성을 알려주려고 농담으로 “너도 좀 찼지?”라고 했다. 평소 피해학생 1.이 말도 잘 듣고 착한 학생이어서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피해학생 1.이 울음을 터뜨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피해학생 1.에게 사과했고, 그 후로는 피해학생 1.에게 수업시간이나 그 외 개인적으로도 살이 찼다거나 비만이라거나 지적인 사실이 없다.

2019년 4~5월경 학생 신체검사가 끝난 후, 교육적인 차원에서 비만의 문제점을 알려주기 위해 고도비만인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손 든 학생은 없었던 거 같다.

위 학생 신체검사 이후, 복도 계단에서 피해학생 1.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별로 안 나왔네”라고 이야기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2) 사건요지 2)항 관련

피해학생 2.의 엉덩이를 치고 허리부위를 만진 게 아니라 양손으로 학생의 허리를 잡고 “어머, 날씬해졌네”라고 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었지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제가 비만을 이야기하는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사건요지 3)항 관련

피해학생 3.이 ○학년 때가 전학 왔는데 ○○○에서 전학 온 게 아니고 ○○○에서 전학 와서 ○○과인 제가 학생의 ○○ 생활기록부를 번

역하고 전학 절차를 도왔다.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정 교육을 못 받았다’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살에 만난 거야, 너희가 태어나서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거는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야.”, “너희 행동이 나쁘면 엄마, 아빠를 욕되게 하는 거야”라는 말을 했을 수는 있다.

피해학생3.에게 제가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학생이 제게 “선생님 제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버릇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학교 ○학년 여학생(피조사자 1.외 3명)

피조사자가 자기관리를 이야기 하면서 피해학생 1.에게 비만이라고 관리하라고 말했다. ○학년 때(2018년경) 피해학생 1.을 지목하며 “너는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게 그 중에서도 피해학생 1. 이다”, “너 몇 킬로 찼니”, 등의 말을 하였다. 피조사자의 말을 듣고 피해학생 1.이 눈물을 보이려고 하니까, 피조사자가 “이제 세상이 무서워서 이런 말 못하겠다”라며 사과한다고 성의없이 “미안해”라고 이야기 했다.

2019년 4~5월경 신체검사 끝나고 수업시간에 피조사자가 ‘고도비만인 사람 손들어 봐라’라고 해서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피해학생 1.은 고도비만이 아니어서 손을 안 들었는데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도 속한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피조사자가 복도 계단에서 피해학생 1.의 배에 손을 대고 “별

로 안 나왔네”라고 이야기 했다.

2) ○○○○학교 ○학년 여학생(피조사자 2. 외 6명)

피조사자가 남녀차별, 몸매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2019년 ○학년 때 피조사자가 신체접촉을 한 학생은 피해학생 2.인데, 3번 정도 신체접촉을 한 것 같다. 그 중 같은 해 1학기 여름경에 복도에서 피조사자가 살을 많이 뺐다고 뒤에서 엉덩이를 치고 허리 라인을 쓱 만져서 진짜 소름이 돋았다. 이 모습을 본 친구가 피조사자의 행동이 보기 싫었다고 하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도 있다.

3) ○○○○학교 ○학년 남학생(7명)

2학년 초경 ○○시간에 피조사자가 남학생에게 “살 빼면 더 멋지겠다”, “살 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불쾌했는데, 나중에 피조사자에게 불쾌하다고 했더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오래전 일이라서 그때 어떤 느낌인지 기억나지 않고, 사과를 받고 끝났다.

4) ○○○○학교 ○학년 여학생(피조사자 1.외 3명), ○○○○학교 3학년 ○학생(5명)

피조사자가 피해학생3.을 많이 무시했다. 피해학생3.이 ○○○에서 전학을 왔는데 수업시간에 태도가 안 좋으니까 피조사자와 갈등이 많았고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3.에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하여, 피해학생 3.이 피조사자에게 욕을 하였다. 피조사자가 피해학생3. 무시하는 것 같았

다.

3. 인정사실과 판단

가. 총론

「헌법」 제10조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자기결정권(또는 자기운명결정권)’은 외부(국가권력 등)로부터 간섭 없이 개인의 생활 및 운명 등(사적 사항)과 관련하여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간섭 또는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는 분명하게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말이나 행동을 강요하여 불쾌감이나 당혹감을 주는 경우, 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른 “성폭력”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등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이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 제1항은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희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중 가해자가 교사일 때,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점, 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피해가 일상적이며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배우는 과정의 학생으로 올바른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점 등에서 피해의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제1항은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4조는 개인정보 보호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즉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을 의미한다.¹⁾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학생의 몸무게나 비만의 정도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교사가 공개적으

1)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401 결정

로 비만인 학생을 특정하여 지목하거나 학생의 몸무게를 공개적으로 묻는 행위는 학생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사건요지 1) 에 대한 판단 (인격권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한 판단)

1) 인격권 침해여부

2018.경 피조사자는 수업시간에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피해학생 1.에게 “너도 좀 찼지?”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피해학생 1.이 눈물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학생은 몸의 변화가 심한 시기여서, 자신의 몸(또는 몸매)에 대해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몸에 대해 민감한 학생에게 교사가 공개적으로 특정 학생을 지목하며 ‘살이 찼다’, ‘비만이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학생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피해학생1.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인격권 침해 이후 피해회복 여부

위의 일이 발생한 이후 피해학생 1.에게 “즉시 사과를 하였다”고 피

조사자는 주장하고 있고, 피해학생 1.은 피조사자가 “성의없이 ‘미안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과’는 사과를 하였다는 가해자의 주장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사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해학생 1.의 주장과 같이 피조사자의 사과를 ‘성의 없이’로 느꼈다면, 피조사자와 피해학생 1. 사이의 사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3) 인격권 침해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여부

피조사자는 2019년 4~5월경 학생 신체검사가 끝난 후, ○학년 교실에서 고도비만인 사람 손들어 보라고는 했는데, 손 든 학생은 없었던 거 같으며, 피해학생 1.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학생 1.과 같은 반 여학생들의 주장은 피조사자의 주장과 달리 피조사자가 수업시간에 “피해학생 1.도 (고도비만에) 속한다”와 같이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이후, 피조사자가 복도 계단에서 마주친 피해학생 1.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별로 안 나왔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피조사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학생 1.의 주장은 피조사자가 복도에서 피해학생 1.의 배를 손으로 만지

고 “별로 안 나왔네”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피조사자를 특별히 음해할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조사자가 2019년 4~5월경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고도비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피해학생 1.을 지목하여 고도비만 여부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 교실 밖에서 만난 피해학생 1.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별로 안 나왔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수업 중 위와 같은 발언 이후, 계단에서 만난 피해학생 1.의 배를 손으로 만진 행위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배는 손, 발 등 다른 어떤 부위보다 민감한 신체 부위여서 당사자의 동의없이(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만져서는 안 되는데, 교사와 학생이 동성(同性)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성희롱에 해당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조사자는 피해학생 1.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다. 사건요지 2) 에 대한 판단(부적절 신체접촉에 대한 판단)

피조사자와 피해학생 2.는 피조사자가 2019년 1학기 여름경에 복도에서 피해학생 2.가 살을 많이 뺐다고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조사자는 위 신체접촉 행위 이후 “어머, 날씬해졌네”라고 말하였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아이를 칭찬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학생 2.는 “뒤에서 쓱 만져서 소름이 돋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건강관리, 생활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조언을 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교사가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몸을 만지면서 교육 및 조언을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허리부위는 사건요지 1)항의 배 부위와 마찬가지로 손, 발 등 다른 어떤 부위보다 민감한 신체 부위로 당사자의 동의없이(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만져서는 안 되는데, 교사와 학생이 동성(同性)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의적으로 만졌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 2.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피해학생 2.는 이에 대해 “소름이 끼쳤다”고 표현하는 부분에 잘 나타나고 있음)하여 “성희롱” 중 동성에 의한 신체적 성희롱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 2.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 사건요지 3) 에 대한 판단(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

피해학생 3.은 피조사자가 2018.경 당시 ○학년인 피해학생에게 수업 시간에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라는 식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조사자는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학생 3.과 이를 지켜보았던 참고인 또는 목격자(○학년 학생들)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특별히 학생들(피해학생 3.을 비롯한 학생들)이 피조사자를 음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목격한 학생들은 피해학생 3.이 잘못된 점도 진술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살펴보았을 때, 피조사자가 2018년경 수업시간에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피해학생 3.에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임과 동시에 학생에게는 부모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여, 이 말을 들은 학생은 분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 3.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 그 밖에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판단

피조사자는 사건요지1)에서와 같이 2019년 4~5월경 학생 신체검사가 끝난 후, ○학년 교실에서 고도비만인 사람 손들어 보라고는 했는데, 손 든 학생은 없었던 거 같다며, 특정 학생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 1.과 같은 반 여학생들은 피조사자의 주장과 달리 피조사자가 “2019년 4~5월경 신체검사 끝나고 수업시간에 ‘고도비만인 사람 손들어 보라’라고 해서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며 피해학생 1.을 지목하며 “‘너는 관리를 해야 한다.’, ‘너 몇 킬로 찼니’ 등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사건요지1)에 대한 판단과 같이 학생들이 특별히 피조사자를 음해할만한 사정이 없고,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조사자가 2019년 4~5월경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고도비만인 사람 손들라고 하였고, 피해학생 1.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였다고 판단한다.

교사가 수업중 학생들의 건강관리, 생활관리 등을 교육하고 조언을 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비만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손을 들어 확인하려 하거나, 특정학생을 지목하여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한다면, 교사가 기대할 수 있는 교육효과보다 침해되는 학생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이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조사자가 수업 중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들도록 하고, 피해학생 1.을 지목하면서 ‘고

도비만'을 이야기한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학생 1.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학생 1.을 비롯한 같은 반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 소결

위와 같이, 피조사자가 피해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여 학생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학생과 동성(同性)의 교사가 칭찬 또는 격려, 사과, 친밀감 표시 등의 의미로 학생 당사자의 동의없이 학생의 신체 중 은밀한 부위를 만짐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학교에서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동성(同性)의 교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부위를 동의없이(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만지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Ⅲ. 결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0. 4. 2.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붙임1]

관련 법령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 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